

머리말

외 래를 보다보면 우울증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이분을 보면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드리고 싶고, 한마디라도 보다 따뜻하게 해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다.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지 면담증 기운없이 맥 풀려 있던 노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나마 반짝인다든지 잠시라도 웃어보이면, 내 자신도 기쁘기 그지없다. 난 그 순간 정신과 의사에서 내 앞에 환자로 앉아있는 이의 아들이나 손자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마저 듈다. 분명, 그들에게서 나의 부모,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

사람은 누구나 우울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노인에게는 특히 가까운 친족, 친구의 죽음이나, 은퇴, 신체증상의 노화와 같은 상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보면, 우울증이 노인에게 흔하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 아닐까 여긴다. 환자가 젊은 경우도 그렇지만, 노인 우울증 환자를 대할 때는, 웃면서 더불어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져본다. 젊은 시절을 그들의 자식과 지금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길러준 그분에게는 작은 정성이긴 하지만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노년기 우울증의 진단 및 역학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적증상 및 인지장애에 의해 가려져 모르고 지나가기 쉽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예가 많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인해 절망에 사로잡혀 지내거나, 퇴행되거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 신체질환, 망상, 환각, 자살 등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하게 된다.

우울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역학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구미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생동안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10%에 이를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에서의 조사결과는 주 우울장애가 1%, 불쾌기분장애는 2%, 우울기분이 동반된 적응장애가 4%의 유병률을 보여 젊은 연령층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결과이고 병원입원환자나 수용소에서의 노인에게는 약 12%의 유병률을 나타내었다. 우울증상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나, 주 우울장애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는 유병률이 오히려 감소하고 85세가 넘으면 다시 증가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가장 받아들여지고 있는 역학조사 결과이다. 한편, 성별에 따른 유병률은 대개 여자에서 우울증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만, 55세 이후의 인구에서 남성유병률이 급작스럽게 높아져서 80세에 이르면 심지어 여자보다도 높아진다.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

우울증의 원인은 유전소인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 우울증의 경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유전적 소인이 작용하는 정도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노년기 우울증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취약성과 일생동안의 경험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그 외에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나 생리변화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울증이 시작되거나 악화된다. 생물학적 취약성에는 신경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감소, 모노아민 신화효소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코



이 민수
<고려의대 정신과>

노인성 우울증의 치료와 관리

티콜동 신경내분비계의 이상도 거론되고 있다.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라고 하면, 신체질환, 거동이 불편한 것, 은퇴, 경제적 능력의 상실, 빈곤, 사회적 고립,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 노화로 인한 시력 및 청력의 악화, 자녀로부터 느끼는 거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흔히 '상실'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 모든 상실이 자존심, 신뢰감 및 인간상호관계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어 우울감을 가중시키게 된다. 그밖에도 노년기 우울증 환자에서 임파고 수치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의 면역학적인 요인, 뇌영상으로 확인된 뇌 구조의 변화 등 기질적 원인이 대두되고 있다.

노년기 우울증의 감별진단

노년기 우울증은 노년기에 치매와 함께 가장 흔한 정신장애 노 중의 하나로 이 양자간에 감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인지장애, 수면장애, 무감동, 사회적 철퇴 등 임상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서 감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더욱 이 우울증은 치매에 비해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진하거나, 치매를 합병증으로 나타내고 있는 우울증을 발견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 진단에는 주의 깊은 병력침, 이화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뇌 전산화 촬영과 자기 공명 영상이 진단에 필수적이다.

노년기 우울증의 임상양상

노년기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내과적 질환에 의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 가족들도 병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환자가 의도적으로 증상을 보인다고 까지 여기게 된다. 또한, 환자 스스로 우울감을 직접 호소하는 예가 드물다. 하지만 면담 중에 질문하면, 흥미가 없고 자신의 기분이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불안, 기억력 손상, 신체증상, 초조감, 체중감소, 변비, 건강염려증적 증상, 히스테리성 행동, 망상 등이 많은 것이 노인 우울증 환자의 주된 특징이다.

다음은 주 우울장애 노인환자의 증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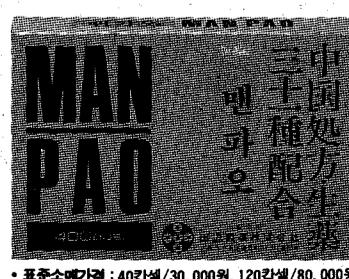
71세 남자로 이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평상시 건강하였다. 씨는 사후를 대비하고 싶어, 분기에서 살고있던 장손에게 함께 살 것을 제안하였다. 장손과 2년여를 사는 동안에 손주 며느리가 시할아버지인 ○씨를 무시하는 등으로 인해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모처럼 들어와 사는 장손가족들이 집을 나가버릴까봐 꼭 참고만 지낼 수 밖에 없었다. 1년 전부터는 손자며느리가 경제권까지 모두 손에 쥐려고 해 화도 내 봤지만, 부인의 만류로 어찌할 바 없이 넘겨주고 말았다. 이후, 수개월 이상 기운이 없어 산책하기도 힘들고, 뜨거운 기운이 가슴에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새벽녘에 일찍 잠에서 깨어서는 다시 잠을 뜯어놓는 등이 있었다. 따라서, 우울증상은 만성적 통증이나 위장경련, 기억력 저하 등이 있는 경우에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임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년기 우울증의 형태에는 가면성 우울증, 가성치매, 망상적 우울증 등이 있다. 가면성 우울증은 우울한 것을 부정하고 슬픔이나 불쾌기분을 호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울증상은 만성적 통증이나 위장경련, 기억력 저하 등이 있는 경우에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7면에서 계속)

만파오

精力·氣力 증강을 위한 祕方
山炮鎖 淫桂桂人鹿
茱附陽羊皮 菜桑草
黃子川 薑仙牧廣
茯枸續胡茅丹丹拘
苓杞斷蘆葉孢
麥子熟巴皮腎
門玄地巴海黑
冬參黃戟熟馬
牛黃覆天骨沖當
膝者盆肉脂
甘白子阿膠
草荳蓉膠
31種



• 표준소매가격 : 40캡슐/30,000원, 120캡슐/80,000원
• 문의처 : (02)464-0861, 학술부

받고 있는 대표적인 자양강장제로 신허(腎虛)를 보(補)하는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배합되어 있으며 옛부터
중국 황실에만 전해져 내려온 비방(秘方)과 중국의학 및
기력 및 활력 증강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만파오’란 男宝 무엇인가?

‘만파오’는 강장(強壯) 및 강정(強精)을 중심으로 한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복합처방 되어 있는
광범위한 효능·효과의 자양강장제입니다.

수입·판매원
한일약품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56-408

제조원
日本·田辺製薬株式会社

日本·大阪

제조원
中国天津市力生製藥廠

中国天津市南開區黃河路491号

